

## 일부 초등학생에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 관련요인

최경미<sup>1</sup>, 김건엽<sup>2</sup>, 이무식<sup>3\*</sup>, 홍지영<sup>3</sup>, 배석환<sup>4</sup>, 황해정<sup>3</sup>  
<sup>1</sup>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보건교육학과, <sup>2</sup>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3</sup>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4</sup>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 The Related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Sever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yung-Mi Choi<sup>1</sup>, Keon-Yeop Kim<sup>2</sup>, Moo-Sik Lee<sup>3\*</sup>, Jee-Young Hong<sup>3</sup>,  
Seok-Hwan Bae<sup>4</sup> and Hye-Jeong Hwang<sup>3</sup>

<sup>1</sup>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sup>4</sup>Department of Radiology,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아토피의 증상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초등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로는 아토피 피부염의 있는 학생의 어머니 27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 11월 한 달 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가 높았다( $p<0.05$ ). 유병 기간이 길수록( $p<0.01$ ), 전신에 아토피 증상을 보일수록 중증도가 심했고( $p<0.01$ ), 식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육식을 많이 할수록 피부염의 증상이 심했으며( $p<0.05$ ),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할수록 증상이 심해졌다( $p<0.05$ ).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정도를 종속변수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병기간이 길수록, 패스트푸드 섭취가 잦을수록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심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심할수록 치료를 위한 어머니의 노력정도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자녀가 굶기 증상을 보일 때의 애정도, 월평균 관리비용, 부모정서 및 학생의 신체건강·정서·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의 교정과 패스트푸드 섭취 제한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health management of the primary school, by finding and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degrees of atopic dermatitis symptom's severeness. The subjects of our study were collected 273 pupils mothers, whose children are undergoing through the atopic symptoms. The investigation process took the entire month of the November in 2006. The result of the older the pupils, the severer their symptoms( $p<0.05$ ). The longer the period( $p<0.01$ ), the more widely spread over the body, and the severer the symptoms( $p<0.01$ ). In the dietary habit, the more meat they eat, the severer the symptom( $p<0.05$ ). and in relation to the eating the food outside home, the more frequently they eat the fast-food, the severer the symptom. In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degrees of atopic dermatitis symptom's severeness as the dependent variables, it is discovered that the longer infection period they have and the more frequently they have the fast-food, the severer the symptom of the atopic dermatitis. The parent's love for the child, the monthly cost for the management of the infection, and the parent's feeling toward the child,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physical health, the feelings and the relation with the friends of the infected child, when the child shows the symptoms of scratching his skin. The conclusions of When all the results above are put together, the dietary habit of eating the meals mostly prepared with the meat should be corrected, and the education to form the pupil's right dietary habit, such as, putting the limit on the fast-food, must be made, in order to prevent the symptom of the atopic dermatitis from getting worse. And by the recognizing the atopic dermatitis as the family health problem, the comprehensive family health management, including the mother should be made.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Family health management, Primary school, Pupils

\*교신저자 : 이무식(mslee@konyang.ac.kr)

접수일 10년 12월 14일

수정일 (1차 11년 01월 06일, 2차 11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11년 02월 10일

## 1. 서론

아토피 피부염의 심각한 문제는 정확한 병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환경요인, 피부자극을 일으키는 요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미생물, 스트레스, 면역학적 기능이상과 함께 유전적 요인들이 함께 관여하는 발생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관련요인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농촌보다 도시가 발생률이 높고, 환경오염이 많은 곳과 아파트를 포함한 시멘트 집에서의 발생률이 흙이나 나무를 사용해 지은 집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아토피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

모유수유가 아토피 피부염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 지견을 분석한 연구결과[2]에 따르면 모유수유가 영아에게서 음식 알레르겐의 위장관 흡수와 노출을 줄임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율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아토피성 피부염의 병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발생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학교보건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 질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악화와 관련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과 생활환경, 모유수유 경험 등과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증상의 경중에 따른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아토피의 증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상담, 학부모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통하여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2006년 11월 한 달 간 시에 소재한 2개교와 면에 소재한 2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학교의 보건교사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학생을 통하여 설문지를 아토피 피부염의 있는 학생의 어머니 273명에게 작성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 불확실한 응

답을 한 17명을 제외한 25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작성한 개발된 도구[3]를 수정 보완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조사 대상 학생과 어머니의 일반적인 사항과 경제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의 성별, 나이, 출생순서, 어머니의 학력, 직업, 경제 수준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관련특성은 전문가의 진단여부, 진단을 받은 기관,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기간,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의 범위, 증상 정도, 알레르기성 질환 동반여부, 식생활 태도, 모유수유 경험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관리 실태는 과거 치료경험, 치료경험의 순서, 병원 선호도, 경제적 부담감, 부모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12.0 한글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경중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특성 관련요인, 학생건강 영향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토피 피부염 증상정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3. 결 과

###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증상 정도

연구대상자의 연령에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하다’라고 답변한 가장 많은 연령군은 만 12세 이상으로 46.7%였으며, 가장 적은 연령군은 만 8세로 14.7%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 )[표 1].

### 3.2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정도와 관련 위험 요인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유병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37.5%), 병분포가 전신일 경우(60.5%), 주로 육식섭취를 할 경우(39.5%), 패스트 푸드를 주 1회 내지 2회 먹는 경우(41.7%)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표 2].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증상 정도  
단위: 명(%)

연구변수	증 상		계
	심하다	심하지 않다	
성별			
남	26(26.5)	72(73.5)	98(38.3)
여	49(31.0)	109(69.0)	158(61.7)
연령*			
만 7세 이하	12(33.3)	24(66.7)	36(14.1)
만 8세	5(14.7)	29(85.3)	34(13.3)
만 9세	17(29.8)	40(70.2)	57(22.3)
만 10세	11(18.6)	48(81.4)	59(23.0)
만 11세	16(40.0)	24(60.0)	40(15.6)
만 12세 이상	14(46.7)	16(53.3)	30(11.7)
출생순서			
1째	37(30.3)	85(69.7)	122(47.7)
2째	33(28.9)	81(71.1)	114(44.5)
3째 이상	5(25.0)	15(75.0)	20( 7.8)
경제적 수준			
잘 사는 편이다	61(29.3)	147(70.7)	208(81.3)
못 사는 편이다	14(29.2)	34(70.8)	48(18.8)

\* p<0.05, 카이제곱검정에 의한.

[표 2]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정도와 관련 위험 요인  
단위: 명(%)

연구변수	증 상		계
	심하다	심하지 않다	
유병 기간*			
1년 미만	12(16.4)	61(83.6)	73(28.5)
1년 이상-3년 미만	18(28.6)	45(71.4)	63(24.6)
3년 이상	45(37.5)	75(62.5)	120(46.9)
병변 분포**			
얼굴 또는 잡는 곳	36(22.8)	122(77.2)	158(61.7)
상반신 또는 하반신	13(23.6)	42(76.4)	55(21.5)
전신	26(60.5)	17(39.5)	43(16.8)
알레르기성 질환 동반			
있다	45(30.6)	102(69.4)	147(57.4)
없다	30(27.5)	79(72.5)	109(42.6)
식생활 습관*			
채식을 주로 한다	7(20.6)	27(79.4)	34(13.3)
채소와 육식을 골루 한다	36(25.5)	105(74.5)	141(55.1)
육식을 주로 한다	32(39.5)	49(60.5)	81(31.6)
패스트푸드 섭취*			
거의 먹지 않는다	8(21.1)	30(78.9)	38(14.8)
가끔 먹는다(월 1~2회)	42(26.0)	116(74.0)	158(61.7)
자주 먹는다(주 1~2회)	25(41.7)	35(58.3)	60(23.4)
모유 수유 경험			
6개월 미만 수유했다	55(30.4)	126(69.6)	181(70.7)
6개월 이상 수유했다	20(26.7)	55(73.3)	75(29.3)
주거 형태			
아파트(상기별과 포함)	67(29.9)	157(70.1)	224(87.5)
개인주택	8(25.0)	24(75.0)	32(12.5)

\* p<0.05, \*\* p<0.01 카이제곱검정에 의한.

### 3.3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학생 건강 영향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학생 건강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토피 증상이 심한 경우는 성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자녀의 불안 정도에서는 ‘가끔 걱정하거나 불안해 한다’는 의견이 64.0%로 가장 많았고,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무관하다’는 답변이 42.7%로 가장 많았다. 신체 건강 영향은 ‘약간의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5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p<0.05)[표 3].

[표 3]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학생 건강 영향  
단위: 명(%)

연구변수	증 상		계
	심하다	심하지 않다	
성격 형성**			
무관하다	10(13.3)	37(20.4)	47(18.4)
약간의 영향을 준다	27(36.0)	94(51.9)	121(47.3)
많은 영향을 준다	35(46.7)	43(23.8)	78(30.5)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	3( 4.0)	7( 3.9)	10( 3.9)
불안 정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	4( 5.3)	55(30.4)	59(23.0)
가끔 걱정하거나 불안해한다	48(64.0)	116(64.1)	164(64.1)
걱정,불안해하는 날이 더 많다	16(21.3)	8( 4.4)	24( 9.4)
항상 걱정하거나 불안해 한다	7( 9.3)	2( 1.1)	9( 3.5)
교우 관계**			
무관하다	32(42.7)	118(62.5)	150(58.6)
약간의 영향을 준다	19(25.3)	47(25.0)	66(25.8)
많은 영향을 준다	22(29.3)	14( 7.7)	36(14.1)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	2( 2.7)	2( 1.1)	4( 1.6)
신체 건강 영향**			
무관하다	5( 6.7)	49(27.1)	54(21.1)
약간의 영향을 준다	41(54.7)	102(56.4)	143(55.9)
많은 영향을 준다	27(36.0)	24(13.3)	51(19.9)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	2( 2.7)	6( 3.3)	8( 3.1)

\* p<0.05, \*\* p<0.01 카이제곱검정에 의한.

### 3.4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정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성을 인정한 변수들과 기존 알려진 관련요인들을 독립변수들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병기간, 패스트푸드로 나타났다. 즉 유병기간이 긴 경우와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경우가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표 4].

[표 4]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B	S.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성별(여/남)	0.195	0.307	1.215 (0.665 - 2.219)
유병기간(1년 미만 기준)			
3년 이상	1.240	0.396	3.457 (1.592 - 7.705)
1년 이상 - 3 미만	0.967	0.457	2.631 (1.073 - 6.449)
출생순서(1째/둘째이상)	0.204	0.303	1.226 (0.667 - 2.220)
동반알러지 질환(유/무)	0.070	0.300	1.073 (0.596 - 1.930)
식생활(채식기준)			
육식	0.615	0.519	1.850 (0.669 - 5.116)
채식+육식	0.118	0.502	1.125 (0.420 - 3.012)
패스트푸드 섭취 (겨의 먹지 않음 기준)			
자주(주1~2회이상)	1.506	0.513	2.874 (1.502 - 7.855)
가끔(월1~2회이상)	0.280	0.466	1.323 (0.531 - 3.297)
모유수유경험(무/유)	0.306	0.348	1.358 (0.686 - 3.096)
주거형태(아파트/주택)	0.205	0.472	1.228 (0.487 - 3.096)

#### 4. 고 찰

아토피 피부염은 정확한 발병기전 및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 또한 없는 실정이며,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보다도 악화 요인을 잘 알고 이들을 피하고 증상완화를 위해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는 견해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관련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이 증상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2세 이상의 경우가 46.7%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심하다는 응답이 증가해 연령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군의 초발 연령이 1세 많아질수록 증상악화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4]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은 유병기간이 길수록 증상이 심하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이완 기간이 1년 많아질수록 증상악화 위험률이 약 1.35배 높다는 연구결과[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병변의 분포에 따른 증상은 전신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중증도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증상범위가 넓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병변의 분포에 따라 경증군과 중증군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안면부에 피부염이 존재할 경우 증상악화 위험률이 높게 측정된 연구[3]와 본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50-80%에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성 비염이 발생하며 이는 나쁜 예후 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5][6]. 본 연구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 중 알레르기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57.4%로 알레르기 동반율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신선한 채소의 섭취빈도가 낮아져 아토피 질환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와 채소와 과일 섭취의 감소로 비타민의 섭취가 낮아져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7]. 본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의 식생활 습관을 살펴본 결과 육식을 주로 하며 증상이 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9.5%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아토피피부염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식습관이 불규칙적이고, 아토피 피부염 유발식품의 섭취량은 많았다는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였다[8].

아토피 피부염환자들의 식이섭취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건강인에 비해 패스트푸드 식품의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본 연구에서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으며 증상이 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1.7%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을수록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과 증상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아토피 피부염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아동의 질환 중증도였다 [10].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심할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많은 시간을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사용하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관리비용 면에서도 증상이 심할수록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상이 심할수록 어머니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가 거부나 방임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교우 교사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아토피 피부염 환아의 행동문제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11]. 자녀의 사회성 발달 부족에 대한 걱정, 아동의 문제 행동과 훈육방법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이 단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심할수록 자녀의 성격형성과 불안정도, 교우관계, 신체 건강 영향 등에 영향이 많은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할수록 친구수가 감소된다는 연구결과[12]와 일치한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우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자녀의 교우관계

개선에 부모를 포함하여 모두가 인지하고 증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5. 결론

결과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의 교정과 패스트푸드 섭취 제한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1] 윤성필, 김병수, 이주홍, 이승철, 이영근. 아토피피부염환자의 생활환경 및 생활습관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제37권, 제8호, pp. 983-991, 1999.
- [2] 윤혜선. 모유수유가 아토피 피부염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 진단과 치료,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 제25권, 제1호, pp. 53-58, 2005.
- [3] 박지은. 아토피피부염 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생활양식 차이,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 정수진, 김규한, 김도원, 김성진, 김인주, 김창욱, 나건연, 노영석, 박진, 박동재, 박천욱, 윤숙정, 원영호, 이규석, 이광훈, 이승철, 이원주, 이애영, 이정덕, 장재원, 장효찬, 정병수, 정현, 최종수, 최지호, 허창훈, 조상현. 한국 소아형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3권, 제11호, pp. 1497-1509. 2005.
- [5] 이성나. 어린이 환경성 질환 심각하다, 위터저널, 제22호, pp. 16-23, 2006.
- [6] Leung DYM, Eichenfield LF, Boguniewicz M. Atopic dermatitis, In: Feedberg IM, Eisen AZ, Wolff K, Austen KF, Goldsmith LA, Katz SI, editor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6th ed. New York: McGraw-Hill, pp. 1180-1194, 2003.
- [7] McNally NJ, Williams HC, Phillips DR. Atopic eczema and domestic water hardness, Lancet, vol. 352, pp. 527-531, 1998.
- [8] 박남숙, 전유선, 김영남, 조경동, 백옥희. 일부 초등학생의 아토피피부염 유무에 따른 식습관, 식품섭취양상 및 영양소섭취상태 비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제38권, 제11호, pp. 1471-1632, 2009. 11.
- [9] Tanaka T, Kouda K, Kotani M, Takeuchi A, Tabei T. Vegetarian diet ameliorates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reduction of the number of peripheral eosinophils and of PGE2 synthesis by monocytes, J Physiol Anthropol Appl Human, Vol. 20, No. 6, pp. 353-361, 2001.

- [10] 유일영, 김동희. 아토피 피부염 환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간호 요구, 아동 간호학회지, 제10권, 제4호, pp. 423-430, 2000.
- [11] 김동희, 조성은, 엄혜영. 학동기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행동문제와 부모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과의 관계,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제20권, 제3호, pp. 197-205, 2010.
- [12] 양수진, 윤숙정, 이재욱, 이지범, 김성진, 원영호, 이승철. 소아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중등도와 정신, 행동 및 가족 문제의 관련성. 대한피부과학회지, 제43권, 제9호, pp. 1170-1176, 2005.

### 최 경 미(Kyung-Mi Choi)

[정회원]



- 2006년 3월 ~ 2007년 2월 :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교육

### 김 건 엽(Keon-Yeop Kim)

[정회원]



- 1996년 6월 ~ 1998년 2월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 1998년 3월 ~ 2003년 2월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2003년 3월 ~ 2007년 2월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관심분야>  
예방의학,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

**이 무 식(Moo-Sik Lee)**

[정회원]



- 1992년 3월 ~ 1994년 2월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 1994년 3월 ~ 1999년 2월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1995년 3월 ~ 1998년 4월 : 육군본부 의무감실군의관(육군대위)
- 1999년 3월 ~ 현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2008년 10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임상시험센터 소장
- 2009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부원장

<관심분야>

예방의학, 보건의료정책, 산업의학, 노인의학

**황 혜 정(Hye-Jeong Hwang)**

[정회원]



- 2005년 3월 ~ 2007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7년 3월 ~ 2010년 8월 : 건양대학교 의학박사
- 2007년 9월 ~ 2009년 2월 : 혜천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 의무행정과 외래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충북도립대학 의료전자과 외래교수
- 2010년 8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외래교수

<관심분야>

보건의료, 예방의학, 노인의학

**홍 지 영(Jee Young Hong)**

[정회원]



- 2003년 3월 ~ 2005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학석사
- 2005년 9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 2006년 4월 ~ 2009년 4월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의관(육군대위)
- 2009년 5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관심분야>

예방의학, 보건의료, 군진의학, 노인의학, 지역사회보건

**배 석 환(Seok-Hwan Bae)**

[정회원]



- 2000년 9월 ~ 2008년 8월 : 건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팀장
- 2004년 3월 ~ 2006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7년 2월 ~ 2009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박사
- 2008년 8월 ~ 현재 : 건양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자문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방사선학, 보건의료장비